

동티모르 선교 이야기(40)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찌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4:10)



할렐루야!

남태평양 티모르섬 동쪽, 동티모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중한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랜만에 문안을 전합니다.

지구촌의 질서를 한 순간에 마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조국 한국과 한국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했던 남태평양 외딴 섬 동티모르에도 코로나19는 불청객으로 불쑥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동티모르 정부는

3월26일-4월26일까지 1개월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공식적으로 1명이지만 4곳의 격리 시설에 850여 명이 격리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영국이나 한국 등 외국에서 일하다 근로 계약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

입니다. 동티모르 내의 모든 교육기관은 이미 휴교에 들어간지 오래이며 정부 기관도 최소 필요 인원만 남겨 두고 재택 근무로 돌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맞닿는 국경도 폐쇄되었고 동티모르의 유일한 니콜라우 로바토 국제공항도 오늘부터 폐쇄가 됩니다, 코이카와 자이카, 그리고 외국 NGO 단체들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이며 오늘은 포르투갈에서 자국민을 철수 시키려고 전세기가 동티모르로 들어옵니다. 거리에서는 자동차와 사람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모든 상점들의 문은 굳게 닫혔고 간간히 전기를 충전하여 사용하려고 줄을 선 몇몇 사람들만 보일 뿐 적막 그 자체입니다. 동티모르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함으로 오토바이에 동행이 있거나 차량 안에 운전자 외에 다른 동행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동티모르 상황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며 모든 것이 멈추어 서 버린, 정지된 상황입니다.

GRASA no KUIDADU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한 순간에 세계 질서를 정지시켜 버린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를 목상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과학문명으로 통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우쭐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함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이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는 2주째 격리 중입니다. 외딴 섬 남태평양 티모르섬 한 북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소중한 동역자님들께서도 코로나19를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AKAMPAMENTU KI'IK

성경 “통” 여행 작은 캠프

코로나19의 영향은 지구촌
구석 구석 뿐만 아니라 이
곳 남태평양 고요하고 외딴

섬 동티모르에도 심각하리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1월 초에 진행되는 [성경 “통” 여행 캠프]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놓고 1개월 전부터 기도로 준비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4월 방학기간 중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참석하기로 한 동티모르 전국 15교회에게 [제6회 성경 “통” 여행 캠프]를 연

기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보낸 공문을 받아보지 못한 지방의 한 교회가 캠프가 열리기로 한 하루 전 오후에 저희가 있는 헤라 희망의 씨앗 선교센터(동티모르 선교센터)에 도착한 것입니다. 현지 목회자 한 명과 5명의 학생들이 말입니다. 상당히 황당했지만 당장 돌려 보내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온 교회는 동티

모르에서 동남쪽으로 가장 먼 곳입니다. 수도 딜리에서도 대략 230km의 거리이며 버스도 13시간씩 소요되는 아주 먼 곳이며 오지입니다. 그곳에서 딜리로 온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긴급 스텝 회의를 열고 의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인원에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성경 “통” 여행 작은 캠프]를 진행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 동안 [로마서]와 [히브리서] 전체를 통독하면서 그룹별로 묵상하며 개인별로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소망하기는 2020년 제6회를 맞이하는 [성경 “통” 여행 작은 캠프]에 참여한 하나님의 희망 씨앗들이 돌아가 더욱 성숙되어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9)

희망의 씨앗 가족 선교센터가 있는 헤라는 동티모르 어느 지역보다 가톨릭 영향력이 막대한 곳입니다. 지난해 선교센터 헌당예배가 끝난 직후 부터 저희가 사역하는 이 곳을 주시하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을 먼저 섬기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 한국어학교를 2월 4일에 개교했습니다. 동티모르에서는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티모르 문화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처음부터 좀 강하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이 올 수 있게 말입니다. 현재 재학생 56명에 평균 35명이 모입니다. 한국어와 함께 문화와 꿈,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LOKE KURUS KOREA

한국어학교 개강





한 동안 선교센터 헌당예배 준비와 비자문제, 우기철로 인해 동역하는 교회와 산 속에 있는 교회 방문 및 예배인도에 소홀했다가 분주한 것이 끝난 1월과 2월에 이어 3월에도 동역하는 교회와 지방과 산 속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

HAHI'I ba MAROMAK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1월 12일(주일)에는 동티모르 동남쪽 끝자락에 있는 나사렛교회와 뵤세다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나사렛교회는 논산교회(김영호 목사님)가 후

원하여 건축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사렛교회는 성도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동티모르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어서 뵤세다교회에서 요한복음 20:21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월 19일(주일)에는 덜리에서 서쪽으로 대략 80km 떨어져 있는 아타바에 나사렛교회에



서 출애굽기 3:1-12절로 설교를 했습니다. 2월 9일(주일)에는 셀로이라는 지역에서 레위기 19:1-35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3월 8일(주일)에는 수도 덜리에서 동쪽으로 대략 230km 떨어진 로스팔로스 침례교회에서 신명기 6: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스팔로스 침례교회도 논산교회(김영호 목사님)의 후원으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는 희망의 씨앗 가족 선교센터 안에 있는 진광미스바교회에서 희망의 씨앗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진광미스바교회는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의 후원으로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교회입니다. 동티모르 오지를 다니면서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가사 중에 하나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입니다. 매주일 예배가 드러지지 않는 곳에서 현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현지 성도들도 찬양과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중보해 주세요 ♥

KORRIJE TETÚN BIBLIA

동티모르 테툼어 성경



대략 2년 전에 시작한 동티모르 현지어인 테툼어 성경 번역과 감수가 끝나 이제 출판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겁없이 시작한 번역 작업이 생각처럼 쉽

지만은 않았습니 다. 중간 중간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특히 단어가 제한적인 동티모르 상황이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소중한 동역자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드디어 마칠 수 있었습니 다. 현재는 감수

작업도 끝나서 출판사에서 편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3월 두 달은 바깥출입도 자제하고 테툼어 성경 감수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4월 중순 경에 인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초판으로 3천부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한 권 인쇄비용과 동티모르까지 택배 비용을 합쳐서 1권 당 5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1,500권을 인쇄할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모든 인쇄 비용이 채워지도록 두 손 모아 함께 해 주세요 ♥



동티모르는 현재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모든 교육기관들은 휴교상태이고 모든 상점들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기관도 최소 인원만 남겨 둔 채 모두 재택 근무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

KONSTRUSAUN UMA-KREDA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



자재상도 모두 문을 닫고 휴점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메티나로 함께하는 복음교회 건축(전주태평교회 후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메티나로 함께하는 복음교회 건축 과정은 대략 25%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계획은 수도 딜리에서 서남쪽으로 대략 50km 떨어진 산 속 깊은 곳에 타라수 하나님교회 건축(광정교회 후원)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현지 성도들이 제법 모이는 규모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회 부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동티모르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니고 장로교입니다. 또 한 곳은 아타바에라는 곳인데 이곳은 예배당 및 학사관으로 사용될 학사관교회(군산중동교회 후원)입니다. 이 지역은 깊은 산 속으로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내려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도 딜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소망하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교회 건축 및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두 손 모아 함께 중보해 주세요♥

[동티모르 선교 뉴스]

- 하나: 안식년으로 인해 장기 비자가 자동 소멸되어서 비자를 다시 신청했는데 7개월 만에 1년 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 둘 :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꽃 유치원 2 곳(따블라시와 헤라)과 한국어 학교를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휴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셋. : 학사관에 있었던 희망의 씨앗 가족들 5명이 산 속으로 잠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 중보해 주세요.

[두 손 모아 함께 중보해 주세요!]

1. 코로나19로 혼란한 동티모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하소서.
2. 사막에 길이 나듯이 동티모르에서 걷는 길마다 복음의 길이 되게 하소서.
3. 희망의 씨앗 가족들 5명이 산 속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 예배하게 하소서.
4. 하늘꽃 유치원생과 희망의 씨앗 가족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세요.
5. 테툼어 성경 인쇄 재정이 채워지고 인쇄 과정이 순조롭게 하소서.
6.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이 상황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소서.
7. 손현성, 이경호(하림, 하진) 선교사가 늘 영육간으로 강건케 하소서.

함께 함은 동역, 동력입니다

국민: 358801-04-18917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첫 송금시 선교국(02.3459.1031~4)에 손현성 선교사 후원임을 꼭! 꼭! 알려 주세요!

국민: 057-21-1536-098(예금주: 손현성)

개미군단의 거룩한 희망의 씨앗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룹니다

손현성 OMC 선교사

연락처: (+670)7841.4204
(+670)7425.4216

이메일: hysson0191@gmail.com
hysson0191@naver.com

네이버밴드: Timor Leste 부흥을 꿈꾸며
카카오톡: hysson8291

Konese, Tuir, Haklaken Nia

그를 알고, 그를 따르고, 그를 전하자!